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호 [루게 제 24427호] 주제 103 (2014)년 1월 1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사설

로동적위군은 우리 당의 위업을 총직하게 받드는 혁명적무장력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로동적위군창건 55돐을 맞이하고있다.

로동적위군은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당의 혁명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가는 혁명적무장력이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력량이다.

로동적위군창건 55돐은 력사상 처음으로 전민무장화를 실현하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

로동적위군의 현명한 지도에 승리와 영광의 업적을 만드는데 빛내이며 위대한 선군조선의 손길에 최강의 전투력을 떨치고있는 주체적민간부력의 불멸성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틀어쥐고 새해의 총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전체 로동적위군 대원들은 지금 당과 수령의 현명한 지도에 승리와 영광의 업적을 수놓아온 성스러운 55성상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휘를 받들고 선군조선의 번영을 위하여 애국적투쟁을 다짐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간부력을 강화하고 온 나라를 튼튼한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혁명적민간부력건설은 조국방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계급주의가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국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독창적인 총대중시사상을 내세우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전민적투쟁의 시련을 열어놓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48(1959)년 1월 14일 로동적위군을 창건하신것은 혁명무력건설과 전민적투쟁체제 확립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다. 로동적위군이 창건되으로써 우리의 자위적군사력은 더욱 강화되게 되었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실현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로동적위군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가장 혁명적인 민간부력이며 정당한 조직동원체제와 강철같은 전투력을 지닌 불멸의 대오이다. 민간부력건설의 고귀한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건드릴수 없는 자위의 보루로 전변시키는 어머니수령님의 업적을 만드는데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선군령도의 첫 시기부터 정규무력과 함께 민간부력강화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어머니수령님의 주체적인 민간부력건설사상과 이론이 더욱 발전봉우리되고 우리 로동적위군은 혁명의 존엄한 년대기마다 당의 무장력으로서의 본태를 굳건히 고수해오셨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것은 나날은 주체적민간부력건설에서 새로운 경기가 펼쳐진 것임을 우리는 년대기로 빛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로동적위군을 정예화, 강화하기 위하여 불변불휴의 로고를 바치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쏟으시고 대 시가마다 민간부력의 싸움준비안정을 위한 혁명적대책을 위해주시므로써 우리 로동적위군은 인민군대의 기질과 품모를 갖춘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공격에도 방어에도 다같이 준비된 일당백의 전투대로로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로동적위군은 또 한번의 천출위업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명활무쌍한 지략, 강철의 담력과 비범한 영웅성을 지닌 군사적 영예시며 천하제일명장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방위부력건설에 쌓아올린 선 위대한 대원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로동적위군의 지위와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가고계신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도 인민군대의 군기와 함께 로동적위군의 붉은기가 선군혁명의 황금의 기치로 나부기도록 하시고 중요하게 다스린 민간부력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을 백송의 지침으로 발전봉우리화하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행 전략을 제시하신것은 나라의 자위적국방강화의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불멸의 명적으로 된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로동적위군이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강화발전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더욱 완벽하게 실현되게 되겠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민방위건설사상과 령도가 인우의 보루로 전변시키는 어머니수령님의 업적을 만드는데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백두령정도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로동적위군은 오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력있는 자위적민간부력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성세,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으로 높이 솟아 강성부흥의 명마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갈수 있게 하는 크나큰 힘으로 된다.

우리 로동적위군은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대오이다.

수령옹위는 주체적민간부력의 제일생명이며 고귀한 투쟁전통이다. 항일의 유격구들과 전파의 불길속에서, 전투 천리마대고 조시기와 엄혹한 고난의 시련속에서 높이 발휘된 전선대들의 수령옹위정신이 전체 로동적위군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울려오고있다. 조스와 의를, 직업과 직무를 서로 달라도 오직 자기 명도자를 받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당중앙의 령도만을 따르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닌 열혈투사들, 최후의 순간에도 령도자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고 누가 알아주지않던 령도자의 구상을 꽃피우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충정의 인간들이 우리 로동적위군 대원들이다. 령도자와 운명의 피를 맺고 사는 우리 로동적위군 대원들에게 있어서 수령옹위보다 더 값있는 보람은 없다.

인민군대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에 서 있다면 그 억측과 중심에는 로동적위군이 서있다. 만일 그가 누구든 우리의 최고존엄을 조공이라도 건드리고 따름을 꾸는 자가 있다면 로동적위군의 무자비한 징벌을 절대로 피할수 없을것이다. 수령옹위를 최대의 투쟁으로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꽃피어 이어가려는 주체적민간부력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신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로동적위군은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일당백의 전투력을 지닌 불멸의 대오이다.

정치사상적, 전략기술적 우월성은 우리 민간부력의 근본특징이고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백두의 선군명장의 령도를 받는 우리 로동적위군은 오늘 사상과 전법, 조직성과 규율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튼튼히 준비되어있다. 전체 로동적위군 대원들이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불멸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인민군대의 선군정신으로 단결하고 위대한 대원님들께서 열어주시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적 의식을 높이 기르고있는 것이다. 전법과 전술, 대담한 실천능력을 지니고 자기들과 자기 군, 자기 향토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지난해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한 로동적위군 열병식은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서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 민방위부력의 무적막강한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이다.

우리 나라는 전진도 철벽이고 후방도 철벽이다. 지금 적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전력앞에 겁을 먹고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있지만 우리 민간부력의 위력에도 한계가 없다. 선군의 기치밑에 무적의 대오로 자라난 우리 로동적위군은 미제와의 최후결산도, 조국통일위업도 승리로 빛내일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적위군이 반제군사건설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기에 선군조선의 강대성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우리 로동적위군은 거창한 창조와 영웅적위훈으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있게 떠맡고나가는 주되는 력량이다.

로동적위군이 틀어쥐고있는 마치와 낫과 붓은 조국건설의 위대한 무기이다. 하루를 열을, 백날 맛잡이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건인불발의 의지, 당의 웅대한 구상과 뜻을 실천해나가는 강철의 마음, 어머니조국을 심장을 바치는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무한한 헌신성이 로동적위군 대원들의 한결같은 품도 되고있다. 그들의 이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대비마, 대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부끼고있다. 경제개발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눈부신 변혁들과 자랑한 성과들은 로동적위군 대원들의 비상한 성과와 영웅적위훈이 깃들여있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소따라 새해의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로동적위군 대원들의 기세는 총천연통, 농협과 건설, 과학기술부문에서 혁신적양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으로 타탄지게 하려는 당의 승호한 뜻과 의도를 앞잡아 받들어나갈 불타는 신념이 이들의 심장마다에 끓어오르고있다. 온 나라 로동적위군 대원들의 정신력이 총폭발될 때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에서 두 세인을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기적과 위훈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될것이다.

당과 수령의 위업을 결사옹위하며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전투대로로 위력떨치는 혁명적민간부력을 가지고있는 것은 선군조선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로동적위군 대원들은 믿음의 신념과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민간부력의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마련하신 민간부력건설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을 우리 당과 조국의 귀중한 재보이며 선군혁명의 만년조석이다.

전체 로동적위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민방위건설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민간부력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며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로동적위군의 훈련과 활동을 진행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백송의 기치로 틀어쥐고 주체적민간부력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 한다.

로동적위군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제일결사옹위, 제일귀대로 여겨게 준비시켜나가기 한다.

백두의 천출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것은 우리 로동적위군의 더없는 영광이고 영예이다.

전체 로동적위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선군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기 한다.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언행과 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하여도 지향사하며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을 확고한 신조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한다. 대오안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님의 명령일하에 하나같이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체계와 공명을 철저히 세우며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지나간 것에 얽매는 원수님만을 절절히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원수님부류는 끝까지 찾아오는

신념과 의리의 인간,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는것을 삶의 근본모토로 내세우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관철하고야마는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주체적민간부력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천배백배 강화하며 온 나라를 금성철벽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싸움준비에서 자만과 만족은 금물이다. 모든 로동적위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사상, 우리 제도가 체일이며 우리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투철한 신념, 원수들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자비도 모르고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천만대적이 담벼를 들어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적기질을 지닌 결연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의 훈련제일주의방향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로동적위군의 작전전투지휘능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전투정치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최조로 하게 하며 누구나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무술같은 체력, 명활한 지략을 소유한 필멸하는 싸움꾼으로 자신들을 단련해나가기 한다. 비상동원체제와 지휘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전선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틀어쥐고 온 나라를 철옹성같이 다져놓음으로써 그 어떤 천지의 정황속에서도 자기 군, 자기 향토를 믿음직하게 지켜야 한다.

올해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할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전체 로동적위군 대원들은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년대기마다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속도, 진군속도를 창조하며 불멸의 위훈을 세워온 것처럼 새해의 총진군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나가기 한다. 김정일대국주의를 체첸화하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부강하고 명활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위훈만을 창조해나가기 한다. 누구나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헌신적, 군인기질, 군인본태로 오늘의 총진군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투쟁으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 로동적위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앞으로도 영원히 백두산대국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는 필승불패의 위용을 높이 떨쳐갈것이다.

위대한 백두산혁명강군을 계속전진

수백리 청천강반에 라번지는 혁신의 불길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 새해 첫 전투 열흘동안에 수만m의 굴착과 성토작업 수행

새해 첫 주부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최전성시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과 감격속에 받아안고 총천연 기세로 언제와 발전기술 등 구조공사를 위한 일체의 첫 전투에 진입한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시작부터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올해 첫 열흘 동안에 수만m의 굴착과 성토작업을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위해 주요건설대상의 첫자리

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무한히 고무되어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앞잡아 열어나가기에 전제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기상에서 며칠째 모든 건설장소에서 2시간가량씩과 야간을 돌격이 공사, 굴착공사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그 실적이 날이 갈수록 계속 뛰어나고있다.

집상소, 권영태, 윤일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겨울철공사대상과 과제를 명백히 정하고 굴착공사에서 작업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연계기중기와 선별실비들을 원만히 갖추기 위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우고 자체보장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리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뜨거워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신년사 말씀이 새해 첫 전투를 총동원하여 과업을 훌륭히 완수하고있다.

주요건설대상인 연계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굴착공사에서 자랑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지난해의 공사과제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평양시에서 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통상훈을 부를 대담한 목표에 따라 연계공사를 위한 과제를 과감히 완수하고있다. 평양시에서 돌격대원들도 연계공사장에서 구별된 과제를 맡고 야간작업을 벌이면서 굴착공사를 보냈으며 다그쳐 매일 많은 량의 굴착과제를 해체하고있다.

발전기실굴착공사에서 드센 박차를 가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우안연계공사를 위한 토사굴착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고있다. 지난해 겨울철에 발전

매일 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

천내 지구관 광련 합 기업소에서

천내지구관 광련 합 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전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 합 기업소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예비탄발을 전방성으로 마련하여 새해 첫 탄부들이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 합 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 일군들과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여나가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도에 련 합 기업소의 일군들은 들끓는 탄광들을 맡고 내려가 석탄생산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이들은 석탄증산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체탄장을 늘이는데서 찾고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전망이 좋은 새 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이와 함께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을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든 탄광에서 석탄생산의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감으로 뛰어나고있다.

련 합 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새해 첫 전투부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사회주의경쟁을 의있게 조직하여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새해 첫 진군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던 탄광의 탄부들은 련속전공, 련속박공을 들이대고 착암기를 비롯한 장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석탄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전차경과 청년들을 비롯한 탄광의 모든 강들에서 매일 달가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천내탄광과 삼천탄광에서는 체탄장탄리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체탄증대들사이에서 더 많은 체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하고있다. 이곳 탄광들의 격박감에서 석탄생산은 년초부터 많은 탄량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불꽃나는 전투를 벌여나가고있다. 그에 맞게 일군들은 일생 및 체탄증대를 정확히 진행하여 탄부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고있다.

련 합 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대고조전투망대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특히까지 신 천 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북창 화력발전련 합 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시작부터 드센 공격전을 들이댄다

해 산 청 년 광 산 에서

들이 광장들에 들어가 생산 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광산에서는 사정에 있던 광석운반능력을 능력이 큰 수직갱으로 이전하고 심부에 전자광차를 집중하여 운반능력을 훨씬 높였다. 이와 함께 파괴의 효과성을 높이고 모든 체광장에서 조구통을 새로 보수정비하여 생산된 광석을 제때로 성과적으로 뽑아내도록 하고있다. 광산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높이 세운 1월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책임지고 하여 광물생산에서 전면 혁신을 일으

켜나가고있다.

출광장들을 맡은 8월 26일경과 탐사정에서는 굴진, 박토처리 등 준비공정을 확고히 앞세우고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6월 3일경에서는 막장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굴진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광석운반을 맡은 기계화강과 관베아갱에서는 설비들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선방처리능력과 장광물들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광산에 과전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앞선 체광법과 선광방법을 받아들여 탄화수소 산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특히까지 전 철 주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게 하자

인민보건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킬 불같은 열의

새해전군검에 펼쳐나선 보건성 일꾼들의 심장이 새차게 고동치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게 하자.

심장마다 울며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를 안고 성일군들은 시작부터 기세좋게 달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의 모든 일꾼들은 보건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그대로 올해 보건사업의 총적목표로 되였다.

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작전하고 내밀고있다.

올해 보건성에서 할 일은 대단히 많고 이들이 세운 목표 또한 방대하다.

성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류경구강병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등을 본보기단위로 정

하고 모든 치료예방기관에서 정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 무한한 헌신성이 없이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된 의료일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한 치료예방부문의 정부원들은 모든 보건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고 특기기술을 가진 인재와 전문의사양성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세워 유능한 의사들을 많이 키우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사업들을 전개하고있다.

광천료양부문의 정부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룡양소들을 더 잘 꾸리며 온전, 약수를 비롯하여 광천자원을 치료에 널리 리용하는 사업과 육로도로양소에 대한 2단계개건보수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작전들을 면밀히 세워 가고있다.

전국의 도소아병원들에 새로 먼거리의료봉사설비를 빠른 기간내에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 여러가지 예방약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 우리 식의 새로운 의료기구를 제작하는 사업, 고려의학과학원을 비롯하여 각 도보건기관에서 고려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과학화하고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개발

하기 위한 사업들에 모를 박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약부문의 정부원들은 각각 인민병원들과 약품공급단위들에서 상비약품과 대증약품을 언제나 원만히 갖추어 수요에 따르는 합리적인 약품공급체계를 세우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근로자들에 대한 보철, 백내장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유선암을 비롯한 암조기진단체계를 세우고 경각의마취에 의한 정상산도부동해산법을 적극 도입하는 사업, 인민들의 건강증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의사당담료구역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주민건강관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사업 등을 올해 보건부문에서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다.

참으로 방대하고도 무거운 과업들이다. 하지만 성의 일꾼들은 모두가 신심에 넘쳐있다.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여름의 땀은 날때도 마다하지 않고 병원건설장들을 찾아 뛰놀며 가라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장같이 간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 성일군들의 한결같은 배심이다.

지금 성에서는 치료예방부

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높은 목표가 세워진데 맞게 그 관에로 전국의 모든 보건일꾼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지난해 훌륭히 일떠선 병원들을 찾는 성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받들어 정성의 불길을 새차게 지퍼올리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책임일군의 헌신적인 모습은 해당 부문을 담당한 정부원들의 책임성과 열의를 더한층 북돋아 주었다.

성정부원들은 해당 단위들에 내려가 전방적수상치료봉사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도상해례에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년초부터 긴장한 소생전투를 벌이고있는 의사, 간호원들을 찾아간 성의 한 일꾼은 의료일꾼들이 지나야 할 뜨거운 정성과 인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민보건의 사업감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위생방역부문의 일꾼들도 각급 위생방역기관들의 령계밑에 여러가지 질병들의 유행병태를 제때에 파악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제약공업부문과 고려약생산부문의 일꾼들도 상비약품, 대증약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를 놓고 현실에 내려가 토론을 심화시키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고려약공장들이 큰 은을 내도록 하는 한편 마시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약품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내밀고있다.

이외에도 성의 모든 일꾼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우고 사업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이야기하게 노력하고있다.

성당조직의 참신하고 힘있는 정치사업이 이들의 투쟁열의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계획은 세워지고 목표는 눈앞에 있다.

구체적이며 명백한 전투목표와 방법론이 있고 그것을 집행하여 할 일꾼들의 혁명적이며 헌신적인 사업기쁨은 승리할 확신하게 한다. 성일군들부터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다운 복무자가 되자는 것이 이들의 결심이고 각오이다.

성일군들이 힘있게 내걸은 뜻깊은 새해 첫걸음과 더불어 올해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룩될 귀중한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옥 별

의 학 과 학 원 에 서

제품의 국산화 실현에 힘을 집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하고는 보건사업에서 절박하게 나서고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힘을 집중하는것입니다.》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그 어디서나 새차게 나래치고있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해 의학과학원의 일꾼들과 그 아래단위 연구사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의학과학원의 일꾼들은 의약품, 의료기구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아래단위들에 일제히 내려가 사무원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리였다.

많은 자재, 원료들을 가지고 여러 단위들을 찾은 이곳 일꾼들은 현지에서 자재의 특한한 토대에 의거하여 결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내놓아 새해전투

에 펼쳐나선 연구사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연구사들이 연구종자를 바로 귀고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구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었다.

정초부터 혁명의 지휘봉을 들고 달려나간 일꾼들의 이신작적에 고무된 의학과학원 아래단위들에서는 올해에 제품의 국산화를 적극 실현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총동원적으로 진입하였다.

중앙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자가물수요방법으로 약성리과종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며 레이저에 의한 피부암치료를 비롯하여 각종 암성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할 신심도높이 새해 첫날부터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 있다.

미생물연구소의 일꾼들은 대추속에 깊이 들어가 연구사들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줌으로써 지난해에 연구완성한 조적배양방법에 의한 여러종의 예방약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의욕을 부쩍 높여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일떠선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일꾼들과 연구사들의 사기는 자못 충천하다.

이곳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지금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중점목표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파감히 떨쳐나섰다.

보다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암과 루와 요드간장, 요드된장의 생산성상화를 위해 현지에서 달려나간 연구사들이 다그치는 한편 이들은 비타민D3 알약생산을 위한 제조방법과 그 공정을 새로 갖추기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과학적지혜와 열정을 총동원시켜 높은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을 만만한 투지를 지닌 의료기구연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투쟁기세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이곳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최첨단의료설비인 초음파와 수술장치를 연구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버치고 있다.

이밖에도 원내검염을 막는데 필수적인 나노세척기에 의한 병원물나물수집기소독제를 연구완성한 환경정화연구소와 영국의 용광로를 줄이면서 조종보다 아 품맛이 지속시간을 훨씬 늘리는 데 이바지하는 새로운 의약품 개발한 약학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그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불꽃나는 전투를 벌이고있다.

당히 마련해준 과학기술봉사의 날개를 타고 정초부터 비약의 불바람을 새차게 일으켜나가는 의학과학원의 일꾼들과 그 아래단위 연구사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올해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서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방 경 찬

일터마다 비약의 불바람이다

각지 의약품, 의료기구공장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과시된 지난해의 자랑한 현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깊이 절감한 보건성의 일꾼들과 각지의 의약품, 의료기구공장 로동계급이 그 어느때보다 양양된 열의를 안고 총진군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걸었다.

새해 정초에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사직이 어려웠던 원산약초농장을 찾은 성당위원회책임일군과 해당 일꾼들은 현지에서 영농준비사업정형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약초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현실적대책안을 세웠다.

적대적분쟁의 또한 만경대고려약공장에 달려나간 생산적합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질 좋고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분담을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서 제시된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뛰고 뛰는 성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에 고무된 각지 고려약공장 로동계급이 지금 날에날마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 단위들인 강계고려약공장과 강계고려약가공공장 그리고 만경대, 안주, 덕천, 신양, 순천고려약공장 로동계급이 이들들에게 바짝 조이고 쫓겨나서 터 기세높이 나아가고있다.

특히 평천고려약공장의 로동계급은 올해에도 또다시 전국의 앞장에서 1월계획을 앞당겨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새차게 울리고있다. 종횡된 자로에 의하면 고려약부문의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판리국적인 공업총생산액계획을 일평균 1.2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보건성 제약공업부문의 일꾼들은 지난 1월 전국의 여러 단위들에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들을 일제히 실어보낸데 이어 순천제약공장의 평양제약공장, 평양예방약공장에서 대증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기동성있게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새해 벽두부터 중산물격전의 불길을 힘차게 지퍼올린 순천제약공장과 신의주마시성공장의 로동계급은 지난해보다 더 나아진 1월계획수행의 앞장에서 한자게 내달리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들어와 개건후 처음으로 되는 제품을 만들어낸 흥남제약공장의 로동계급도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진전하고있다.

비약의 불바람은 의료기구부문의에서도 활활 타르고있다.

지난해에도 올해도 1.4분기계획수행에 필요한 수심종의 자재들을 각지 공장들에 보내준 보건성의 해당 일꾼들은 새해 첫날 많은 후방물자들을 싣고 평양의로기구공장과 남포의로기구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아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하여 펼쳐나선 이들의 로적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적대분쟁에 힘을 넣는 한편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일꾼들의 전투적이며 박력있는 조직사업은 올해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할 신심에 넘쳐있는 각지 공장로동계급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남포의로기구공장의 종업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번일 불꽃나는 전투를 벌여 추사기생산을 위한 유리용해로추조조건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전자의로기구공장과 묘향산의로기구공장을 비롯한 각지 공장들에서도 보다 현대화된 의료기구를 만들어내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정초부터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더욱 새차게 지퍼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의료일군들

철도성병원에서

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과라고 하면 분 초를 다루는 급한 환자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것이다.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이곳 의료일군들은 지난 시기 많은 중환자들을 소생시켰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수술과정에 환자의 상태가 몹시 위급하였지만 구급처리를 제때에 진행하여 소생시켰으며 뜻밖의 사고로 의식이 없던 환자를 세로운 수술방법을 도입하여 계속적으로 소생시켜 혁명초소에 다시 세워주었다.

이런 좋은 성과를 공고히

들라 새해 명절을 즐겁게 보내었다.

그들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과의료일군들 더욱 분발시켰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참된 의료일군들로 준비해나가자!

그들의 이런 결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김종래 전기기판차면합기업소의 한 로동자가 실려왔을 때였다. 상태는 몹시 위급하였다. 의사회의 회가 즉시 소집되고 환자는 인차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수술과정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제기되었지만 김인걸, 방명철 등들은 한말을 요약 새워가 끝낼새 환자를 소생시켰다.

이밖에도 김철, 강경희 등들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이 뜨거운 인간애와 지극한 정성으로 환자치료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치식작무려 잠도리틀 단단히 하고 환자치료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는것은 비단 이곳 과의 의료일군들만이 아니다.

지금 병원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올해에 치료예방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 불같은 열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다들 새해 명절을 즐겁게 보내었다.

그들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과의료일군들 더욱 분발시켰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참된 의료일군들로 준비해나가자!

그들의 이런 결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김종래 전기기판차면합기업소의 한 로동자가 실려왔을 때였다. 상태는 몹시 위급하였다. 의사회의 회가 즉시 소집되고 환자는 인차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수술과정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제기되었지만 김인걸, 방명철 등들은 한말을 요약 새워가 끝낼새 환자를 소생시켰다.

이밖에도 김철, 강경희 등들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이 뜨거운 인간애와 지극한 정성으로 환자치료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치식작무려 잠도리틀 단단히 하고 환자치료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는것은 비단 이곳 과의 의료일군들만이 아니다.

지금 병원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올해에 치료예방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 불같은 열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다들 새해 명절을 즐겁게 보내었다.

그들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과의료일군들 더욱 분발시켰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참된 의료일군들로 준비해나가자!

그들의 이런 결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김종래 전기기판차면합기업소의 한 로동자가 실려왔을 때였다. 상태는 몹시 위급하였다. 의사회의 회가 즉시 소집되고 환자는 인차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수술과정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제기되었지만 김인걸, 방명철 등들은 한말을 요약 새워가 끝낼새 환자를 소생시켰다.

이밖에도 김철, 강경희 등들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이 뜨거운 인간애와 지극한 정성으로 환자치료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치식작무려 잠도리틀 단단히 하고 환자치료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는것은 비단 이곳 과의 의료일군들만이 아니다.

지금 병원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올해에 치료예방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 불같은 열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인류사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꼭다발할 것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로농적위군창건 55돐 기념우표가 나왔다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 도착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 이노카 간지와 일행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마칠수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애 국 과

들이 그를 찾아왔다.

《섭섭하지만, 이런 훌륭한 일을 함께 하면 못손다오?》

이렇게 말하며 함께 일손을 잡는 그들을 바라보는 설일남 로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리었다.

그는 산기슭의 포전을 아예 차가들이 알아 판리할것을 맡기 하였다.

그의 제의는 모두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리망위원의 지지밑에 그들은 본격적인 개간전투에 들어갔다.

그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지향은 무엇인가.

몇해전 3월 어느날 은성군 미산리 2인민반에 사는 설일남로인은 오대도록 당보에서 농일을 하는 젊은이를 보았다.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킬때 당의 전투적호소가 그의 심장을 울리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나는 당원이다. 당원이면 마땅히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의 눈가에 산기슭의 한 포전이 비껴들었다.

들이 많고 장마철이면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비물에 잠기다 싶이 하여 소홀이 적게 나는 땅이었다.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생산하여 나라의 쌀독에 채워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땅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이날부터 그는 그 땅을 개간하는데 달려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여리명의 로인

애 국 과

이 소식에 접한 리안의 많은 로인들이 앞을 다투며 전투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밭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돌추어내기를 하고 물도랑도 새로 냈으며 집에서 마련한 거름도 들뜬 내면서 포전을 갈아나갔다.

불어붙는데 애써 가꾼 포전에 흐르던 작황이 펼쳐졌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농장에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고 분조가 분조를 돕는 집단주의 정신이 더욱 활짝 꽃피어내기도, 농사일에 마음을 불리지 못한 한 청년이 혁신자로 자라난데도 그들의 남포의 노력은 깃들여왔다.

언제나 애국의 한 일군이 알뜰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기쁨에 넘쳐 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날도 풀을 따서 마련한 많은 거름을 가지고 기어이 농장을 찾아가려는 박동전로인을 어느

애 국 과

리가 막아섰다.

《어버니, 쉬쉬쉬 한들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렇게 무리하다가 어떨리구...》

머느리는 며칠사이 피 축찬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팔 팔을 흐르였다.

《걱정말아라. 내가 하는 일이 나라에 보탬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드잖을 모르겠구나.》

박동전정령로인이 지금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를 잘 지어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자고 당부하는 로병을 바라보는 농

국을 위해!

그는 이런 애국의 일념안고 오늘도 농장지현의 길을 곳곳이 걷고있다.

안주시 칠성동 78인민반에 사는 허금녀네는 일흔고개를 넘긴 로인이다.

오랜 세월 팔과 함께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칠성동을 적극 지원하고있는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애국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10여년전 어느날 그는 인민반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사정들로 칠도수송이 지장을 받고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의 생각이 깊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도 칠도는 나라의 동맹인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날 그는 20여리 떨어진 한 객차대를 찾았다.

그리고는 걸린 문제가 무엇인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는 시간이 갈수록 해의 온 거배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에 이르러까지 뚜렷이 밝혀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신심과 활판에 넘쳐 통일애국투쟁에 열기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에 서서 해결하는데서 북남관계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에서 북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로 하여 생겨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우에서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외세때문에 인위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조국통일문제도 북남관계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이미전에 부강번영을 이룩하였을것이다.

조국강토가 두통강토로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분열과 고통속에 살고있는 지도 근 70년이 되어온다. 우리 민족이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결한다면 언제 가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민족의 통일적발전은 이룩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증상하고 반목질시하는 대결시대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이제 더이상 이 쓰라린 비극과 수치를 그대로 감수한다는것은 역사와 후대앞에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은 거배의 지향과 념원으로 보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는 현실적요구로 보나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북남관계개선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신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배는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을 기대하고있다. 우리 민족문제에 북남관계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하여 풀이줄수 없다. 외세는 북남관계문제에 간섭할 아무런 리유와 구실도 없다. 북과 남은 자기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로 해결하는 것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이미 6.15통일시대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현시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는데서 해결해야 할 선차적인 문제는 동족끼리 서로 비방증상하고 반목질시하는것부터 중단하는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거배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지금 남조선당자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야랑을 태도에서 그 무슨 《진정성》을 운운하며 《새로운것》이 아

니》라느니, 《향면전술》, 《위장전술》이라느니 뉘니 하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한편 그 무슨 《도발가능성》이니 뉘니 하고 요란히 떠들어대며 그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외세와의 반민족적인 《국제공조》에 열을 올리고있다.

새해신년사에서 천명한 우리의 애국애족적립장은 북남관계를 거배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가 아니면 계속 악화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배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동족대결을 고위하는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림장과 태도는 애국과 애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도 외면할수 없는 절박한 현실화물이다. 그것이 절정에 달하면 종당에는 북남사이에서 전쟁밖에 일어날것 없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과 도발행위를 확장해 대가 되었다.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한것으로서 온 민족의 관심같은 규탄받음을 받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마땅히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거배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무모한 동족대결과 《중북》소동을 벌여치우며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최 철 슌

《선군정치가 있어 배설된다》

조선반도에서 내외호전관들의 부분별한 전쟁도발책동에서도 나라의 평화와 거배의 안전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고 있는것은 바로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의 덕이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선군정치는 해내의 온 거배의 한없는 민족적금지, 자랑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자주화회의 한 회원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미군이 술한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때없이 벌려놓은 군사원술로 해서 이 땅에서 전쟁의 불씨가 언제 튀길지 모를 불안정한 정세가 도래한적이 그 열마지기, 하지만 이런 정세에서도 사람들은 공포를 모르고 살아가고있다. 그것은 이 북에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막강한 전쟁역력여 있기 때문이다.》

이 북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독단과 전쟁, 강권과 핵전쟁도발기도를 좌절시키는 정의와 평화후호의 보장이자, 그 위대한 보검이 북민이 아니라 남까지도 포함한 전민족, 전민중을 보호해주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최 철 슌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과 외세 추종에서 벗어나 나라

해외동포 단체, 인사, 영국 단체들 성명 발표

로스야고르연립연합회(로스야고르)가 5일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남조선피괴당국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며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해 천명하신 새해신년사를 로스야고르연립은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온 거배가 올해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진정성》이니 뉘니 하며 매우 온당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더이상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과 외세 추종에서 벗어나 화해와 민족공영, 평화를 요구하는 온 거배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매계거나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제로동포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존선언에서 천명한 자주와 민족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에 확고히 서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며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가르치신 새해신년사를 우크라이나고르연립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목과 질시를 더이상 허용하지 말고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대결적인 과대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처신해야 할것이다.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민족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그 누구의 《진정성》을 운운하기 전에 진심으로 화해와 공존의 길에 서슴없이 뛰어들어야 할것이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무익한 망발을 계속 제지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남조선피괴당국의 행위를 준엄히 규탄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피괴당국을 타도할 때에만 이룩될것이다.

맞서 민족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라고 호소하였다.

글은 진보로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운동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하여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피괴당과 도당의 책동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고 누가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성명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배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자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데 남조선당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전제 조선민족의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진보적인류는 신년사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안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피괴당국은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무익한 망발을 계속 제지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남조선피괴당국의 행위를 준엄히 규탄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피괴당국을 타도할 때에만 이룩될것이다.

맞서 민족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라고 호소하였다.

글은 진보로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운동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내란음모사건의 허위성 폭로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8일 《내란음모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이번엔 제헌정에서 통합선출내란음모의 핵심증거라고 하는 지난해 5월 강연록음자료를 공개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집사가 특유성을 켜기 전부터 유죄를 립증하는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지금까지 당국이 내란음모라고 들고나왔던 자료들이 모두 허위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제헌정에서 특유성료를 직접 들은 남 당직자들과 기자들은 자료의 여러곳에서 의도적인 오류를 쉽게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보원과 검찰이 의도적오류가 아니라 강변하였지만 실수로 단언한것에 잘못 특유성료는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당시 강연장소의 분위기도 여가져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것을 보면 거기서 내란음모가 꾸며졌다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하여 특유성료를 내놓기 전까지 그렇게도 의기양양하던 집사의 기세가 그후 꺾이고 그 자료는 정보원에 의해 날조되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내란음모는 없었다. 사건의 결정적증거라고 하면 특유성자료가 남조외 목격되었다는것이 확인됨으로써 내란음모는 없었던것이 밝혀진것이다. 억울하게 무명을 쓰고 간헐 구속자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바란다.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하여 특유성료를 내놓기 전까지 그렇게도 의기양양하던 집사의 기세가 그후 꺾이고 그 자료는 정보원에 의해 날조되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내란음모는 없었다. 사건의 결정적증거라고 하면 특유성자료가 남조외 목격되었다는것이 확인됨으로써 내란음모는 없었던것이 밝혀진것이다. 억울하게 무명을 쓰고 간헐 구속자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바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민주로총본부에 강제로 침입하여 탄동을 부린것은 류태없는 폭력이다.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하면서 로동자를 적으로 삼는 현 《정권》의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는 당국의 로동운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전제 로조인력의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는 당국의 로동운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전제 로조인력의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제 본부가 하루빨리 과거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하며 현 《정부》 역시 성노예문제해결에 일본이 성실히 나서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민족이 통일되고 전

경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다시는 후손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전범사처벌 등 일본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리행하지 않고 여전히 역사외곡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일삼고있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 요구

【조선중앙통신】

